

전북 “진드기 조심!”…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남원 80대 여성 작업 중 물려 양성 확인 치료제·백신 없어… 예방수칙 꼭 준수해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15일 남원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38.1도에 이르는 고열과 구토, 식욕 부진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SFTS 진단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중증일 경우 혈소판 또는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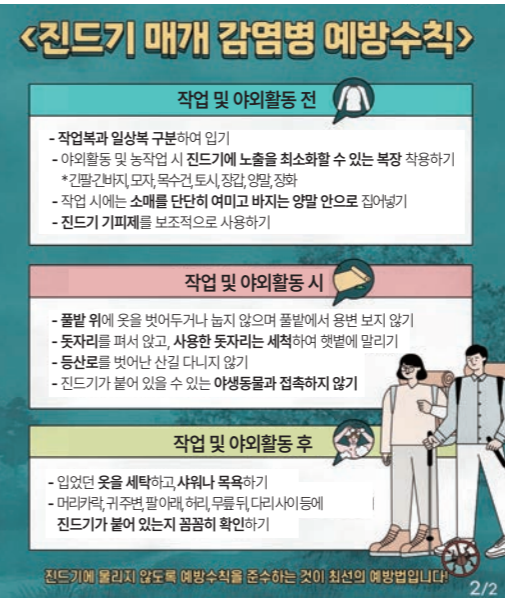
이 감염병의 큰 문제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 시에 SFTS를 감염시키는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작업이나 활동 전후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전에는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야외 활동·농작업 시에는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를 착용하기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야외에서는 풀밭 위에 바로 눕거나 옷을 벗어두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풀밭 위에 앉을 때는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 후에는 세탁하는 것이 좋다.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길고양이나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2023년 9월 남원시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남원시

SFTS를 감염시키는 참진드기가 활동함에 따라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까지 SFTS 매개 참진드기를 채집 및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

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해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은 “SFTS의 경우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8.5%)이 높아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므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부터 가을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AM911@naver.com

서산시, 시청사 건립 사업 착착... 이달 말 '감정평가' 착수

효율성 등 건립 필요성 제기 3개 평가법인 통해 공정 진행

충청남도 서산시가 이달 말 감정평가에 착수하며 차질 없이 시청사 건립을 진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청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재난안전취약시설로

판정받고 여러 부서가 분산 배치돼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이 가중돼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시는 2030년 개청을 목표로 2023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서산시 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는 일곱 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와 토론 끝에 2023년 6월 서산문화원 일원을 시청사 입지로 선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충청남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며 시청사 건립 본격화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미래 지향형 복합청사로서 시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시청사 건립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로 서산시 문화회관을 존치한 상태에서 서산문화원 일원에 시청사를 건

립하고 이후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현 시청사의 동별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2 단계로 문화회관 이전·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석남동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문화예술타운에 문화회관을 이전한다. 이어 현 서산시 문화회관 일원에는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광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타당성 조사 및 중앙재정 투자심사 시 시청사 건립의 최대 증수(상한선)를 확보했으며 실제 증수는 설계 공모를 진행해 기본(실시) 설계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부춘산 공원 아래 조성되는 만큼 청사 주변 자연환경 및 스카이라인 등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 증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달 말 예정된 감정평가는 서산시 충청남도·토지 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서 기자 jjs@skyedaily.com

충청남도 “10분간 소등해요”… 탄소중립 실천 확산

22일 '지구의 날' 맞아 행사 민간·공공 캠페인 전개

충청남도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분청을 비롯해 도내 주요 공공기관과 상징물 등을 중심으로 소등을 실시해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등 행사를 시작으로 25일까지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 수 있도록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을 주제로 탄소중립에 대



충청남도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일상 속 1회용품 퇴출 캠페인 △구내식당 잔반 없는 날 운영 △도청 희망카페에서 텀블러 이용 시 음료 50% 할인 △환경경화 봉사 활동 추진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등이다.

이와 함께 △공주시 기후변화 실천 서명부 캠페인 △보령시 기후변화 심각성 전시회 △당진시 지구의 날 기념 생명축제 △태안군 지구의 날 행사 등 시군에서 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소등 행사를 비롯해 기후변화 주간에 진행되는 다양한 캠페인과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진서 기자 jjs@skyedaily.com

서산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앞장'

현장 중점 지도반 편성 운영 내달 23일까지 관내 수시 출장

충청남도 서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벼 종자소독 및 못자리 현장 중점 지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중점지도반은 내달 23일까지 관내 농업 현장에 수시 출장을 통해 벼 종자소독 및 철저한 육묘 관리 방법을 안내하며 시는 이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한다.

주요 안내 사항은 △벼 카다리병·벼잎선충 등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종자소독 방법 △생리장해 요인 방지를 위

한 적정 파종량 및 적온·적습 관리 방법 등이다.

종자소독 방법에는 60도 온탕에서 10분간 담가두는 온탕침법과 성분이 다른 두 가지 이상 약제를 사용하는 혼용 침지 소독 등이 있으며 자가제종 종자는 소금물에 담가서 뜨는 것은 버리고 가라앉은 것은 사용하는 소금물가리기를 진행한 후 혼용 침지 소독해야 한다.

또한 못자리 설치 시 한 상자당 파종량은 중도 기준 150g이 적정하며 상자 쌀기와 육묘 시 30도 이상의 고온은 피해야 벼 카다리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벼 종자소독 및 못자리에서 문제 발생 시 서산시 기술보급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가 '벼 종자소독 및 못자리 현장 중점지도반'을 편성·운영한다.

이진서 기자 jjs@skyedaily.com

택견과 비보잉의 만남 '비천' 첫 공개

23일 '충주의 날' 공연... 새로운 볼거리 제공

충청북도 충주시는 택견 비보잉팀 트레블러 크루의 택블레이션의 작품 '비천'을 23일 '충주의 날' 식전 공연에 첫선을 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비천'은 국가무형유산인 택견의 전통성과 비보잉의 역동성에 마셜아츠의 에너지를 결합한 신개념 공연으로 브라질 전통 무예 '카포에라'를 떠올리게 하는 창작 안무가 특징이다.

작품은 시의 지원으로 시립택견원과 트레블러크루가 공동 제작했으며 젊은 세대를 겨냥해 택견과 비보잉의 경연 중심과 트래킹을 합친 공연 콘텐츠다.

특히 이번 안무는 이상민 대표와 시립택견원 이주빈 단원이 의기투합해 택견과 비보잉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추도록 구

성했다.

음원 제작은 브레아·국악·힙합·윙크 합 장르 등 다양한 음악가들과 협업으로 제작됐으며 '2023 청년예술가 S'로 선정된 얼터너티브 음악가인 함승철이 작곡하며 음악적 완성도를 더했다.

해당 작품은 앞으로 지역 공연이나 우륵문화제 다이브인 페스티벌 등 축제와 문화유산 아형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작품은 이전 작품인 '천부'보다 택견과 비보잉 각자의 장점을 잘 살린 작품으로 대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것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며 “23일 충주의 날 행사가 첫 초연인 만큼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 bpda@naver.com

대전시 '2025 국가산업대상' 우주산업 선도도시 첫 수상

대전광역시 '2025 국가산업대상'에서 우주산업 선도도시 부문 첫 수상 도시로 선정되며 국내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위치를 굳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는 '국가산업대상'은 창의적이고 탁월한 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수상사 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기도 하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산·학·연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력과 실질적 성과 중심의 우주 클러스터 조성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했다.

특히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는 2028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에 설립될 예정으로 글로벌 연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2월 국가 지역전략산업단지 1호로 교촌동 일원이 지정되며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미래 우주기술 개발 △우주 기업 경쟁력 강화 △인재 양성 △우주 생태계 확대 △우주기업 성장기반 조성 등 5대 전략 총 20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민간 중심의 기술개발 성과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넷 프로젝트'는 대전지역 우주기업 5개사가 참여해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부품을 실증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서 기자 jjs@skyedaily.com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열차'가 23일 첫 운행을 앞두고 있다.

"충남으로 레트로 여행 떠나요" 특별한 '낭만열차' 23일 첫 운행

충청남도 홍성군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기운을 맞으며 홍성으로 향하는 특별한 기차 여행을 시작한다.

21일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역과 광천역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열차'가 23일 첫 운행을 앞두고 있다.

충청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 주관하는 관광상품으로 23일, 5월17·30일, 6월14일 총 4회 운영된다.

레트로 낭만열차는 서울(청량리역 또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영동포역·수원역·평택역·천안역에서 정차하여 예산역·홍성역·대전역·서천역에 각각 원하는 지역에서 하차한다. 7080 추역의 레트로 낭만열차에서는 통기타 연주·레트로 팝기 게임교복 인증샷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홍성역에서 도착하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문당환경농업마을-김파진장군 생가지-홍성 스키아파트-남당항-광천 전통시장 등 홍성의 주요 관광 명소를 즐길 수 있다.

홍성 레트로 낭만열차는 코레일 관광개발 사이트에 예약할 수 있으며 여행상품마다 7만9000원에서 8만5000원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수도권에서 홍성까지 운행 시간이 짧아져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기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애 기자 jjs@skyedaily.com